

얼굴 식별 안되고 전담인력 태부족 쓰레기투기 감시 CCTV 무용지물

광주 273대 설치...64%가 52만화소 이하 저화질

일부 구청 연간 적발 1~2건 뿐...혈세 낭비 지적

19일 오후 1시 광주시 동구 서석동 M 금고 벽면에 ‘무단투기 단속 촬영 중’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무색하게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집시·프라이팬은 물론 각종 생활쓰레기로 짙 찬 비닐봉지, 음식물 쓰레기까지 주변은 악취로 진동했다. ‘무단투기 CCTV 녹화 중’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행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쓰레기를 내다버리기 일췌였다.

주민 박모(53)씨는 “CCTV가 설치돼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제대로 설치돼 있다면 누가 무단 투기를 하겠느냐”라며 “그야말로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제구실 못하는 CCTV”라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설치한 ‘불법투기 감시용 CCTV’가 있으나마나 한 혈세를 낭비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CCTV 설치비용은 대당 수백 만 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화질이 좋지 않거나 단속 전담인력이 부족, 정작 연간 적발건수는 고작 1~2건에 그치는 지자체도 있다.

각 지자체는 설치비용을 더 주더라도 고화질 CCTV를 설치해 무단투기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지만 고화질 CCTV로 바꾼 지자체의 단속 현황 역시 엇비슷하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광주시 각 구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19일 광주시 동구 M금고에 ‘무단투기 단속’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무색하게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

	설치대수	과태료 부과
동구	23대	2건
서구	70대	25건(추정)
남구	76대	1건
북구	74대	2건
광산구	30대	21건
합계	273대	51건

대수는 동구(23대)·서구(70대)·남구(76대)·북구(74대)·광산구(30대) 등 모두 273대다.

이들 CCTV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용으로, 52만 화소 이하는 전체의 64.47%인 176대이며 나머지 97대(35.53%)는 200만 화소 이상이다.

올 들어 이날 현재 각 지자체별 CCTV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면 ▲동구 2건 ▲서구 25건(추정) ▲남구 1건 ▲북구 2건 ▲광산구 21건 등이다. 남구의 경우 CCTV 적발건수는 24건이지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1건 뿐이었다. 얼굴 식별이 어렵거나 당사자가 모르쇠로 일관해 무단 투기자 추적을 포기한 탓이다.

말 그대로 무늬만 무단투기 감시용 CCTV라는 얘기다. 특히 북구는 올해까지 CCTV 74대를 구입하면서 얼굴 식별이 불가능한 100만 화소 미만짜리만 설치,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CCTV 한 대당 설치 가격은 최대 200만 원 이상인 반면 지자체들의 단속 건수는 연간 고작 1~2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저화질에 녹화반경이 좁고 단속인력이 부족해 CCTV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백 만 원에 달하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 운영구조라는 얘기다.

일각에선 제구실 못하는 CCTV 설치 목적이 감시가 아닌 예방 목적이라면 고비용의 CCTV를 얹고도 일용직 근로자들을 투입, 무단투기 예방 홍보 및 수거활동을 병행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광천동 48층 주상복합아파트 교통 대책 미흡 지적...건축신청 철회

市건축위, 조망권 침해 등 40여가지 지적·보완사항 통보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 계획됐던 48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광주일보 7월 23일 6면>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 서구는 19일 “광천동 52-7번지 외 6필지에 지하 4층, 지상 4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며 제출된 건축계획심의 취하 신청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서구는 애초 광주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11일 건축주

스스로 취하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H건설 자회사는 상가와 방송국, 공동주택(250세대) 등이 들어설 48층 규모의 건물(대지면적 6953㎡, 연면적 6만 7465㎡)을 짓기 위한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서구에 제출한 바 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관련 신청서를 서구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건물이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반면, 해소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

등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건축조례는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에 앞서 광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후 교통·건축·조경·환경·법률 분야 전문가 등 33명의 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부실한 교통혼잡 대책, 조망권 및 경관 침해 등 40여 가지 지적·보완 사항을 ‘사전 검토 의견서’에 적시, 건축주측에 통보하는 한편, 12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방독면 착용 이렇게

19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현대2차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열린 ‘2015 올지연습’ 고층아파트 화재대피 훈련에 참가한 주민들이 방독면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5개 광역시와 ‘화재 위험 시내버스’ 공동 대응

현대차에 안전대책 촉구키로

광주시가 특정 차종 시내버스의 화재 취약성 문제와 관련, 전국 5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내버스 화재가 광주를 비롯, 전국에서 이어지는데도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대로라면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광주시 판단으로, 버스 제조사가 적극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광역시 협의회’에서 최근 제기된 ‘현대차 뉴슈퍼 예

어로서티’(유로 5) 차종의 화재 취약성 여부를 주요 안전으로 올려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준공영제 시행 광역시협의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5개 광역시 협의체로 시민 안전 확보 방안, 차량 수리 비용 등 원가 절감 방안,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최근 10년간 시내버스 화재 발생 건수·화재발생 지점·원인 규명 여부 등 관련 통계와 정비 전문가들이 지적한 ‘현대차 유로 5 차량의 화재 취약성 분석 결과’ 자료를 제공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또 현대차 측이 간부급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현대차 엔지니어들의 설명회를 제안했지만 동종 시내버스 엔진룸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이 설명회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19일 승객 30명을 태우고 운행 중에 엔진룸에서 불이 난 현대차 유로 5 차량이 다른 종류의 시내버스와 달리, 화재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대책을 차량 제조사측에 요구한 바 있다. 광주시는 해당 차종의 경우 엔진룸 터보장치와 인접한 흡입벨브가 가연성 물질인 고무·플라스틱 소재로 이뤄져 버스 운행 과정에서 자칫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수산단 취업 미끼 역대 가로챈 40대 영장

순천경찰청은 19일 여수산단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인사비 명목으로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월 김모(여·57)씨에게 “대기업 계열사인 여수 모 회사에 아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간부들 인사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씨는 지난 2011년경부터 고향인 순천에 내려와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사무실을 마련, 주변 사람들에게 ‘여수산단 대기업 인사부서 간부 등을 잘 알고 있으니 취업시킬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라’고 소문을 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부실관리 환자 사망...병원장 입건

광주광산경찰청은 19일 환자를 부실하게 관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 병원장 이모(여·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이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A병원에서 폐쇄 병

동에 입원, 치료 중이던 조모(51)씨에 대한 보호·관리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적·지체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했지만 이날은 간호사의 도움 없이 병동 3층에서 4층 계단을 오르다 넘어졌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배우 최민수 방송촬영 중 PD 폭행



○...배우 최민수가 19일 KBS 2TV ‘나를 돌아봐’ 촬영 중 PD를 폭행하면서 촬영이 중단.

○...KBS 등 관계자에 따르면 최민수는 이날 경기도 양주군의 한 캠핑장에 도착했으나 촬영 환경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외주 제작사 PD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것.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 흥분한 상황에서 최민수가 이 PD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PD는 경찰에 전화해 “최민수가 스태프를 때린다”고 신고하기도 했으나 주위에 있던 스태프가 말리면서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았다고 전연.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펜션·전원주택단지·식당·연수원·요양원 캠핑장·미술관·체험학교 등 최적장소!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구 송학랜드
- 토 9167평, 건 882평, 계획관리지역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귀농/귀촌 전남지역 제1순위 지역-주위, 전원주택단지/무인텔등 개발중!
- 추가 형질변경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시설자금 유치가
- 시세/감정가 - 30억원
- 매매 - 22억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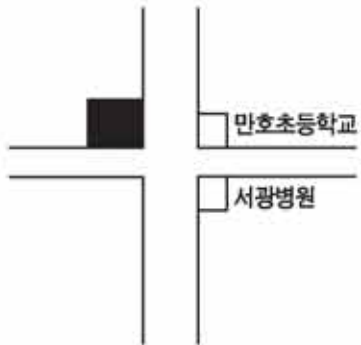
1년후 20억이상 대출 가능

주인직매 H.010-3605-5000

대단위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4면유리, 전망좋은, 광고효과 최고!

- 금호동 서광병원 맞은편 사거리 코너
- 7층중 7층 120평, 구 벅스 Bar 자리
레스토랑/노래홀등 모든업종 오픈 가능
- 매매-5억 5천만원(대출 3억 6천만원 포함)
- 임대-보 1억에 월 300만원
분할임대 가능



주인직매 H.010-3605-5000